



보도시점

2023. 8. 16.(수) 11:00
8. 17.(목) 조간

배포

2023. 8. 16.(수) 09:00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 시작

- 육용계 종란 수입으로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공급 부족으로 오른 닭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17일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종란 수입은 2017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산란계 종란을 수입한 적은 있으나, 육용 실용계 종란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육계 공급은 6,728만 마리로 전년 대비 6.2% 감소하여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9.3%, 12.0%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도매가격(7월, 원/kg) : ('22년) 3,750 → ('23) 4,098 (전년 대비 9.3%↑)

** 소비자가격(7월, 원/kg) : ('22년) 5,670 → ('23) 6,352 (전년 대비 12.0%↑)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추가입식을 독려하고, 삼계 입식을 확대하였으며, 할당관세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육계의 공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산 육계 공급 확대를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을 추진한 것이다.

* 7월 삼계 도축수 : (평년) 2,845만 마리 ('22년) 2,624만 마리 / ('23) 2,899만 마리(전년 대비 10.5%↑)

** 할당관세 : 상반기 6만 톤 도입 완료 / 하반기 3만 톤(29,800톤 추천, 8월 14일 29,646톤 통관)

농식품부는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등을 통해 네덜란드산 종란을 8월 17일부터 500만 개 정도를 수입하여 부화 된 400여만 마리의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하게 되며, 사육기간 감안 시 10월부터 육계가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병아리 가격과 종란 수입 후 부화한 병아리 생산원가 간 차액의 일부를 보조한다.

정부는 닭고기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종란 추가수입 및 할당관세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닭고기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정옥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종란 수입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닭고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닭고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열화사업자 입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연섭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민동명 (044-201-2338)

